

러시아 문화에 녹아있는 히타이트 문화의 흔적들

- 뱀퇴치 모티브 신화를 중심으로

이 재 정*

- I. 머리말
- II. 고대 인도-유럽어계 민족의 뱀퇴치 모티브 신화
- III. 고대 러시아 민족의 뱀퇴치 모티브 신화
- IV. 러시아 문화 속의 페룬의 형상
- V. 맺음말

I. 머리말

뱀퇴치 모티브는 전 세계 신화와 전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용을 퇴치한 게오르기 (게오르기우스) 성인에 관한 전설이다. 이 전설은 원래 중동지역에서 발생하였으나, 십자군 전쟁 시기에 십자군들이 게오르기 성인을 수호성인으로 추앙하였고, 이로 인해 이 전설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가장 유명하다고 하여 가장 오래된 것이 아니듯이, 이와 유사한 신화가 중동 지역의 고대 문명 신화에서 종종 나타난다. 바빌로니아 신화 『에누마 엘리쉬』에서는 마르두키 세계의 혼돈을 야기하는 뱀의 형상을 한 티아마트와 싸워서 세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우가리트 신화의 바알 신 또한 바다와 강의 용인 얌과 싸워 혼돈의 세력을 몰

* 계명대학교 실크로드중앙아시아연구원, 연구교수

리친다. 또한 인도-유럽민족의 「인드라와 뱀 브리트라」 신화에서도 뱀퇴치를 모티브로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 신화는 고대 인도 종교 경전인 리그베다에 수록된 것으로 천둥과 번개의 신인 인드라가 번개를 사용하여 물을 흠쳐 지하로 도망친 브리트라를 죽이고, 브리트라에게 ‘감금’되었던 물을 해방시킴으로써 인간 세계에 가뭄이 사라졌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브리트라는 인도 토속신앙에서 가뭄이라는 자연현상 자체를 신격화한 것으로, 뇌신인 인드라의 승리는 천둥 벼락과 함께 비가 내려 해갈이 되는 과정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신화나 전설이 중동지역에 정착한 인도-유럽민족의 한 갈래인 히타이트인, 고대 그리스인, 그리고 슬라브 민족에게도 나타난다. 러시아 학자 이바노프(Иванов В.В.)와 토포로프(Топоров В.Н.)는 뱀퇴치 신화를 인도-유럽민족 신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신화”¹⁾라고 보았다.

고고학이나 언어학 등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인도-유럽어계 민족들의 선조는 기원전 5천년-4천년 경에 드네프르와 볼가강 사이에 있는 북부 흑해 연안에 거주하였다가, 청동기로 접어들면서 동서방향으로 거주지를 확대하고 남부지역의 중앙 유럽과 두나이 지역으로 점차적으로 이동하였으며, 약 8세기경에는 발칸반도 전역으로 퍼졌다. 학계에서는 고대 슬라브인들을 기원전 10-11세기 경 인도-유럽공동체 민족들로부터 갈라져 나온 민족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 남부지역에 국가를 형성한 슬라브-루시인의 선조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아나톨리아 지역에 정착하여 히타이트라는 국가를 형성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동의 기간이 아무리 길고, 또 아무리 다양하게 변화되었더라도, 공통 인도-유럽어는 관념들의 저장고이자 운반체였으며, 공통 인도-유럽어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이런 관념들을 그들의 가장 오래된 문헌 속에 보존, 기록하였다.²⁾ 그리고 이 언어

1) Иванов Вяч.Вс., Топоров В.Н. “Балтийская мифология в свете сравнительно-исторических реконструкций индоевропейских древностей”, *Zeitschrift für Slavistik* (Berlin). 1974. Bd. XIX, 2. S.144—157.

공동체는 최소한의 공통된 물질문명 및 최소한의 공통된 지적, 정신적인 문명, 즉 본질적으로 동일한 종교적인 문명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이들의 세계관이나 종교적 관념을 언어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 신화이기 때문에, 신화에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동질성이 나타나는 것은 자명하다.

고대 슬라브인들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적었기 때문에 다른 주변 민족들에 비해 문화적, 사회적 발달이 늦었으며, 기록문자도 또한 기독교 수용(988년)과 거의 동시기에 생겨났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자료는 기독교 수용 이후에 쓰여진 것들이거나, 아니면 이미 기독교를 수용한 타민족이 기록한 것으로 고대 슬라브인들 본연의 세계관과 신화체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신화는 자연의 물리적 현상을 인격화하여 그에 걸맞은 명칭을 부여하고, 그리고 자연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불가사의한 일들을 그 인격체와 결부시켜 해석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기에 이런 신화적 사고의 기저에 형성된 고대의 관념은 오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독교 수용 이후에 쓰인 기록물에는 고대 슬라브인들의 자연과 신에 대한 주요 관념들이 남아있다.

본고에서는 비록 시간상 적어도 2천년정도의 차이가 있고 거리상으로도 약 1200킬로(히타이트의 수도 보아즈칼레에서부터 러시아의 최초 국가인 루시의 수도 키예프까지)정도 떨어져 있는 등의 물리적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인도-유럽민족이라는 동일한 기원을 둔 히타이트인과 슬라브인, 특히 고대 러시아인의 신화 속에서 인도-유럽민족의 “주요 신화”인 뱀퇴치 신화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신화가 러시아 문화 속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변형되어 존재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김현자, 「뒤메질, 인도-유럽 신화와 3기능 이데올로기」, 『종교학연구』 19권,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0, p.57 재인용 (Dumezil G., *Mythe et Epopee* I. Gallimard, Paris, 1986(1968초판), p.12).

II. 고대 인도-유럽어계 민족의 뱀퇴치 모티브 신화

뱀퇴치를 모티브로 한 히타이트의 가장 대표적인 신화는 「일루얀카」 신화이다. 이 신화는 신년의 봄 축제인 푸둘리야 축제 때 풍우신의 권능을 과시하기 위하여 의례적으로 낭송되었던 것으로 현재 두 가지 판본이 전해진다. 하나는 히타이트 고왕국 시대의 것으로 아나톨리아 지역의 선주민인 하티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형성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히타이트 신왕국 후기의 것으로 후리인들의 영향이 많이 나타난다. 첫 번째 판본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풍우신이 뱀 일루얀카와 싸웠는데, 뱀에게 패하였다. 이에 풍우신은 이나라스 여신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여신은 인간 후파시아스와 동침을 함으로써 그의 도움을 받아 일루얀카를 붙잡았다. 그러자 풍우신이 나타나 일루얀카를 무찔렀다. 이나라스 여신은 풍우신에게 도움을 준 대가로 일루얀카에게서 빼앗은 지하수를 관장하게 되었다. 인간 후파시아스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으나 이나라스 여신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여 버렸다. 그런 후 여신은 왕에게 자기 집의 관리를 맡기고 그 대신 지하수를 관장하는 능력을 왕에게 주었으며, 그때부터 왕이 비를 다스리게 되었다.³⁾

그러면 일루얀카는 어떤 신일까? 사실 “일루얀카”라는 단어는 이름이 아니라 단순히 ‘뱀’을 뜻하는 단어이다.⁴⁾ 위의 이야기에 따르면 일루얀카는 뱀의 형상을 한 지하의 신으로 지하수를 관장한다. 풍우신과 일루얀카의 싸움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아나톨리아 지역은 여름에는 건조하고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는 기후였다. 봄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풍우 신이 일루얀카에게 패배하여 무기력해지기 때문이라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일루얀카와 풍우신의

3) <http://skazanie.info/mify-hettov> (검색일: 2018. 08.16.)

4) Beckman, G., “The Anatolian Myth of Illuyanka”, *Journal of the Ancient Near Eastern Society* Vol. 14, 1982, p.11.

싸움은 건기와 우기의 교체 현상을 신화적 관념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⁵⁾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인물은 평범한 인간이지만 이나라스 여신과 동침을 하는 후파시아스라 할 수 있다. 신과 인간의 동침 모티브는 여신 인나나와 인간 두무지가 부부관계로 등장하는 수메르의 「인나나와 두무지 이야기」 신화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신과 인간의 성적 결합을 성혼이라 부르는데, 성혼례는 지상의 결혼으로 묘사되는 인간과 신의 성적 결합을 통해 신이 세상에 축복을 내려준다는 고대인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⁶⁾ 성혼의례는 신년 초(추분)에 한해의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기 위해 왕과 여사제(여신의 현신)가 지구라트 신전의 신방에서 혼례를 치르는 것으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회에서 실제로 행해진 아주 오래된 풍습이다. 수메르 문헌에 따르면 성혼례는 약 2주 정도 지속되었는데, 왕은 그 기간이 지나면 부인과 자식이 있는 지상으로 내려간다.

후파시아스와 이나라스 여신의 관계도 여신과 인간 남자의 동침이라는 점에서 얼핏 보면 성혼례와 비슷하다. 수메르의 성혼례와의 차이점은 단지 수메르의 왕들은 성혼례 후 자신의 일상공간으로 돌아가는 반면 후파시아스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자신의 바램을 여신에게 말하자마자 그녀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점이다. 풍우신이 일루안카를 제거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후파

5) 푸둘리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의례로 가나안의 풍산제의를 들 수 있다. 이 제의에서는 ‘구름을 타고 달리는 자이며, 천둥과 번개의 신이자 다산의 신인 바알이 지하세계의 신이자 죽음, 건기를 관장하는 모트와 싸워 승리하는 이야기가 낭송되었다. 바알 신화에서는 바알이 모트와의 싸움에 져서 지하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 땅에 건기가 시작되었는데, 바알이 다시 살아나와 왕권을 회복함으로써 여름 가뭄이 끝나고 새로운 풍요의 계절이 돌아왔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즉, 바알과 모트의 싸움은 풍우신과 안카 신과의 싸움처럼 우기와 건기의 교체를 의미하며 계절의 변화를 설명한 것이다(후크 S.H. 168-178 참조).

6) Lapinkivi Pirjo, “The Sumerian Sacred Marriage and Its Aftermath in Later Sources”, Sacred Marriages: The Divine-Human Sexual Metaphor from Sumer to Early Christianity, pp.7-41. (김영선. 「성혼예식과 풍산제의를의 연관성에대한 제고」, 『신학전망』 199호, 2017, pp.165-209. p.171 재인용.)

시아스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일부 학자들은 여신의 질투로, 또는 신력을 갖게 된 인간이 지상으로 가서 신들의 힘을 사람들에게 알려줄까 두려워 그를 죽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후파시아스의 죽음으로 인간이 지하수를 관장하는 능력을 얻게 된 점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인신공양으로 바쳐진 제물인 것이다. 인신 공양은 고대 문명에서 흔히 행해졌는데,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풍습이었다.⁷⁾

「일루안카」 신화의 두 번째 판본은 풍우신과 일루안카의 싸움이라는 큰 틀을 제외하고는 앞의 판본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두 번째 판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뱀이 풍우신을 이기고 그의 심장과 눈을 빼앗아 가자, 풍우신은 자신의 예전 모습을 찾기 위해 가난한 인간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 아들을 낳았다. 풍우신은 아들에게 뱀의 딸과 결혼하여 뱀에게서 심장과 눈을 되찾아 오라고 말했다. 아들의 도움으로 이전의 모습을 되찾은 풍우신은 뱀과 싸워 승리하였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을 죽여 달라고 청하고, 풍우신은 뱀을 죽이고 자신의 아들도 함께 죽였다.⁸⁾

이 판본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신왕국 후기에 쓰여진 것으로 후리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후리인들은 기원전 16세기-13세기 북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미타니 왕국을 건립한 민족인데, 이들의 기록문헌들과 인장(印章)을 살펴보면 인신공양 풍습이 만연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신화에서도 또한 그런 그들의 풍습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뱀에게 힘을 잃은 풍우신이 가난한 인간의 딸을 부인으로 맞았다는 대목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인신공양의 문학적 표현이라 볼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인신공양 모티브가 나타나는 신화

7) 수메르 신화, 우가리트 신화, 페니키아 신화에서 인신 공양의 흔적이 보이는데, 수메르 출신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야훼에게 제물로 바치려 한 것이 인신공양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8) <http://skazanie.info/mify-hertov> (검색일: 2018. 08.16.)

또는 설화에서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가난한 사람의 딸이 선택되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 판본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인 풍우신에게 자신을 죽여 달라고 청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러시아 학자 가브릴로프(Гаврилов Д.А.)와 나고비쨌(Наговицын А.Е.)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히타이트인을 포함한 인도-유럽민족들의 풍습에 따르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집안의 사람들과 혈연적 관계를 맺은 친척이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풍우신의 아들은 자신의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인 일루얀카를 배신함으로써 가장 큰 죄를 짓게 되었다. 비록 이 배신이 아버지를 위한 것이지만, 가족 배신은 용서받지 못할 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자신을 죽여 달라고 청하였으며, 아버지가 아들을 죄를 벌한 것이다.⁹⁾

히타이트의 풍우신은 고왕국 시대에는 타르훈으로, 신왕국 시대에는 테습으로 불리었다. 이 신은 히타이트의 신들 중에서 최고신이자 천상의 신으로써 우주의 질서를 보호한다. 번개와 폭풍을 관장하는 테습은 농경을 기반으로 하는 히타이트인들에게 공포이자 경외의 대상이었다. 대개 도끼와 번개로 묘사되는 테습은 하늘과 가까운 산 정상에 살고 있으며, 황소 두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산 위를 날아다니면서 여행한다. 알라카회옥의 의례장면을 묘사한 부조에서는 제단 위에 황소가 서있다. 이 외에도 황소 위에 테습이 서 있는 부조도 종종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이 동물이 테습의 상징동물이며, 신성한 동물임을 알 수 있다. 히타이트 문화에서 황소는 힘과 풍요를 상징한다..

고대 그리스 신화인 「제우스와 티폰의 결투」에서도 뇌신과 뱀의 갈등은 찾을 수 있다. 머리에서 허벅지까지 인간 남성이고 두 개의 대퇴부에서 밑으로는 거대한 뱀인 티폰이 제우스의 손과 발에서 힘줄을 잘라내고 동굴에 가두는데, 제우스의 아들인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힘줄을 되찾아주었고, 힘을 회복

9) Гаврилов Д.А., Наговицын А.Е. Боги славян. Язычество. Традиция, Рефл-Бук, 2002. p.216.

한 제우스는 번개를 쏘아서 티폰을 제압함으로써 지상의 혼란을 잠재웠다. 히타이트 「일루안카」 신화의 두 번째 판본과 「제우스와 티폰의 결투」 신화 간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보이는데, 학자들은 「일루안카」 신화의 두 번째 판본이 「제우스와 티폰의 결투」 신화의 원형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이 두 신화는 최고신인 뇌신과 뱀의 대립이라는 모티브를 지니고 있고, 뱀이 상징하는 바가 가뭄이나 지상의 혼란을 야기하는 부정적인 존재로써 제거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간의 차이점도 나타난다. 이 두 신화의 차이는 바로 뇌신의 아들의 형상에서 찾을 수 있다. 히타이트 신화에서 풍우신의 아들은 제물의 형태로, 그리고 죽어야만 하는 존재로 그려졌다면,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는 반인반신의 영웅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런 차이는 인간과 신의 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히타이트 신화에서는 인간이 신의 영역에서 공존 할 수 없는 존재였다면,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간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신의 능력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로 그려짐으로써, 신과 인간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이 이 두 신화의 발생 시기의 선후 관계를 결정짓는데 영향을 끼친 요소이기도 한다.

발칸 반도로 이주한 그리스인들과 소아시아로 이주한 히타이트인들의 신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화적 요소간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기는 힘들다. 일부 학자들은 그리스인들의 선조들이 아직 발칸반도로 이주하기 전에 소아시아에 살면서 후리인들의 영향을 받은 히타이트인들의 신화를 접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다른 학자들은 인도-유럽민족(히타이트인)이 아직 소아시아로 들어오기 전에 후리인들의 먼 선조들이 이미 현재의 그리스 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기 때문에 그리스와 후기 히타이트 신화간의 유사성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학설은 페니키아인들이 그리스에 히타이트와 후리 신화를 전해줬다는 설이다. 후기 히타이트의 신화는 후리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신화와 신화체계가 후리인들의 것과 유사한 점이 많았으며, 히타이트와 그리스 간의 교류는 주로 페니키아인들을 통해 이루어졌

던 당시의 정황으로 인해 이 학설이 좀 더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시친(Sitchin, Z.)은 제우스가 지중해를 건너면서 크레타를 거쳐 그리스로 왔고, 아프로디테는 근동으로부터 바다를 통해 키프로스를 거쳐 그리스로 왔으며, 아테나는 성서의 땅으로부터 ‘열매가 많이 열리는 올리브나무’를 그리스로 가져 왔다는 내용의 그리스 신화를 예로 들어 그리스 종교와 신화는 근동으로부터 소아시아와 지중해 섬들을 거쳐 그리스로 전해져서 형성된 것이라 주장하였다.¹⁰⁾ 실제로 위치적으로 아나톨리아 지역과 고대 그리스 본토는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아나톨리아 지역 민족들의 물질·정신문화가 이웃한 그리스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그리스인과 히타이트인은 공통 인도-유럽어족의 민족이기에 그들 신화간의 친연성은 당연할 것이다.

이 신화들은 형성 시기와 지역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우선 등장인물이 최고신인 뇌신과 그 적대자인 뱀이라는 점, 뱀을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고신이 인간의 도움을 받아 적대자를 퇴치한다는 점 등의 공통점이 있다. 또한 뇌신과 뱀의 싸움 - 뇌신의 패배 - 인간의 도움 - 2차 싸움 - 뇌신의 승리라는 서사적 구조 또한 일치한다.

Ⅲ. 고대 러시아의 뱀퇴치 모티브 신화

고대 슬라브인들의 구비문학 자료들 중에서 페룬과 뱀의 싸움을 모티브로 하는 신화로 「페룬과 괴사(怪蛇) 스키페르」를 들 수 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10) 시친 Z. 지음, 이근영 옮김. 『수메르, 혹은 신들의 고향』. 이른아침, 2004. p.84.

페룬이 아직 어렸을 때 러시아 땅으로 스키페르가 들어왔다. 스키페르가 앞장을 서서 뱀떼를 이끌고 들어왔다. 그러자 페룬이 스키페르를 얹어러 지상으로 내려왔다. 스키페르는 페룬에게 아버지인 스바로그와 인연을 끊고 자기를 섬기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페룬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스키페르는 땅을 깊이 파고 페룬을 그곳으로 던져버리고 그의 세 누이(레랴, 지바, 마레나)를 지하세계로 데리고 갔다. 페룬은 그곳에서 300년 동안 감혀있었다. 페룬의 형제들(벨레스, 호르스, 스트리보그)이 겨우 페룬을 찾아 구해주었다. 페룬은 말을 타고 스키페르가 있는 어둠의 왕국으로 갔다. 스키페르를 만난 페룬은 그의 몸에 창을 찔렀다. 페룬이 스키페르를 높이 들어 올렸다가 어머니 땅에 떨어뜨리자, 땅은 그를 삼켜버렸다.¹¹⁾

괴사 스키페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본문의 문장을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스키페르가 뛰면 땅의 어머니가 흔들렸으며
푸른 바다의 물은 흐려졌으며
높은 기슭도 흔들렸다.
잔인한 스키페르는 세 누이, 레랴, 지바, 마레나를 한 팔로 안아서
그 짐승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들을 꼭 붙잡고
어둠의 왕국으로 데리고 갔다.¹²⁾

즉, 스키페르의 등장으로 기쁨과 사랑의 여신 레랴, 만물을 소생시키는 봄과 뜨거운 여름의 여신 지바, 그리고 차가운 가을과 겨울의 여신 마레나가 사라지게 되면서 질서가 무너진 혼돈 그 자체가 되었다.

그럼 스키페르와 싸운 페룬은 어떤 신일까? 페룬은 슬라브 신화에서 비와 번개의 신으로 나타나는데, 공후와 근위병의 수호자로 고대 러시아 판

11) Асов А., Русские веды. Песни Птицы Гамаюн Амрита-русь, Амрита, 2011. p.256.
(<http://www.tvoyhram.ru/slavrelig/slavrelig15.0.html> (검색일: 2018.09.10.))

12) Асов А., 위의 책. p.256.

테온에 최고신으로 상정되어있다. 러시아 언어학자들은 다른 인도-유럽어 계 민족인 고대 인도의 뇌신과 히타이트의 뇌신이 각각 파르자나(Parjanya)와 피르와(Pirwa)로 불린다는 점에서 이들 간의 상호 연관성 연구를 통해 페룬(고대 슬라브어: Perun)이라는 이름의 기원을 찾으려 했다. 이 단어들은 모두 하나의 어근 per-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르자나(Parjanya)는 고대 인도-유럽어로 참나무를 뜻하는 perknu-에서 파생한 단어이다. 페룬의 신목이 참나무인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뇌신의 이름은 참나무 외에도 고지대를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이기도 했다. 히타이트어로 perunas는 암벽을, 고대 인도어로 párvata는 산을 뜻한다.¹³⁾ 이를 종합해서 재구성하면 인도-유럽 민족에게 있어서 뇌신은 산꼭대기에서 자라는 참나무 숲과 관계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슬라브 민족의 뇌신 숭배에 관한 가장 이른 기록은 6세기에 비잔티움의 역사가 프로코피우스가 쓴 것으로, “그들은 번개 생성자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다. 그에게 제물로 황소를 바쳤으며, 여러 가지 제례를 올렸다”¹⁴⁾라고 기록하고 있다. 페룬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최초의 기록물은 『원초연대기』인데, 945년과 971년의 비잔틴 황제와의 평화협정서에 페룬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 “러시아 측에서 평화를 깨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 그들 중에서는 제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신으로부터도, 페룬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¹⁵⁾, “만약에 위에 기록된 것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믿는 신, 페룬과 가축신 볼로스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¹⁶⁾ 이 외에도 “아침에 이고리 공은 <...> 페룬이 서있는 언덕으로 갔다. 거기에 자신의 무기와 방패, 그

13) Иванов Вяч. Вс. “К этимологии балтийского и славянского названий бога грома”, Вопросы славянского языкознания. Вып. 3, Изд-во АН СССР, 1958. pp.101—111.

14) Прокопий Кесарийский, Война с готами. Книга VII (книга III Войны с готами).

15) Мансикка, В.И., Религия восточных славян, ИМЛИ им. А. М. Горького РАН, 2005. p.72. 재인용

16) Мансикка, В.И., 위의 책, p.73-74. 재인용

리고 금을 놓아두었다.”¹⁷⁾

이처럼 페룬은 슬라브 민족의 국가적인 일마다 언급되는 최고신이었으며, 군사력과 지도자의 수호신으로 숭배되었다. 전쟁의 신으로서의 페룬의 형상은 왕궁 친위병과 무사들의 수호신인 히타이트의 피르와(Pirwa)신과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페룬의 무기가 도끼와 번개였고, 제물로 황소를 바쳤으며, 그리고 기우제를 지낼 때 인신공양을 하였다¹⁸⁾는 점에서 히타이트의 테슈과 비교된다. 페룬의 이런 성격과 기능상의 특징으로 다른 인도-유럽어계 민족의 최고신, 즉 고대 인도의 인드라, 그리스의 제우스, 로마의 주피터에게도 나타나기 때문에 페룬에 대한 연구할 때 이 신들이 주로 함께 다루어진다. 이처럼 페룬은 인도-유럽어계 민족들의 신화의 최고신과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페룬의 뱀퇴치 신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제 페룬은 뱀과 싸우기 보다는 뱀의 화신으로 등장하는 벨레스(볼로스)와 싸워 그를 제압한다. 민중들의 관념 속에는 벨레스와 뱀이 동일한 존재로, 그리고 벨레스가 페룬의 주적으로 자리잡혀있다. 러시아의 그 어떤 자료에서도 벨레스와 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고대 러시아 지역에서는 벨레스와 뱀을 동일시하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나타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뱀과 벨레스의 공통된 유형적 특징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러시아 민간신앙에서 뱀은 재생산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 또한 죽은 사람들의 세계를 다스리고, 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물을 관장하며, 지혜로움을 간직한 존재이다. 지상의 풍요를 관장하는 농경신인 벨레스 또한 이와 유사한 형상을 지니고 있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슬라브인들은 벨레스를 뱀과 결부시켜 생각하

17) Мансикка, В.И., 위의 책, p.73. 재인용

18) 페룬에게 행한 기우제에서 인신 공양을 하였다는 내용은 『원초연대기』에 기술되어 있는데, 『원초연대기』는 1113년에 편찬된 것으로 850년경-1110년 경에 걸친 고대 동슬라브 국가인 키예프 루시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이다.

게 된 것이다. 민중들의 관념 속에서 뱀과 벨레스가 동일시화 되면서, 신화나 전설, 이야기 등에서 비록 벨레스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벨레스와 뱀을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동물형상의 신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신화적 관념으로 인해 뱀은 벨레스의 또 다른 형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인도-유럽전통에서 뱀은 뇌신의 적대자였기 때문에, 인도-유럽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러시아 전통에서도 페룬의 적대자로 그려지게 된 것이다. 토포로프는 인도-유럽 민족들의 “주요 신화”이론을 주창하면서 벨레스의 “뱀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볼로사틱과 비교연구를 하였다. 볼로사틱은 병을 야기하는 뱀 형상의 벌레 모습을 한 악한 존재인데, 러시아 신화체계에서는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벨레스와 볼로사틱의 비교 연구는 단지 이름의 유사성과 뱀의 형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성격이 전혀 다른 이 두 존재의 비교는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원래 벨레스는 가축의 신이자 농경신, 예술가들의 수호신으로 민중들의 숭배를 받았다. 전설에 따르면 벨레스는 사람들에게 파종과 수확에 관한 지식을 전해주었고, 그리고 밀로 맥주를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주었다. 그리고 나서 벨레스는 사람들에게 신앙과 지혜를 알려주었다. 벨레스는 지혜의 신으로써 예언자와 악사, 음유시인의 수호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독교 수용 이후 뱀에 관한 고대 러시아인들의 부정적인 관념이 심화되면서 벨레스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신으로 인식되었다. 페룬과 벨레스의 대립을 이야기하는 한 전설에는 벨레스를 지상에 가뭄을 야기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난폭한 벨레스는 야가와 함께 페룬의 먹구름 몰고 갔다.
그러자 어머니 축축한 대지가 말라갔으며
<...> 난폭한 벨레스는 산으로 올라갔다.

그 산에는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 물을 숨겨뒀다.
 녀신 페룬이 바위를 산산조각 냈다.
 무거운 망치로 바위를 치니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왔다.
 벨레스가 바위 밑에 막아놓았던 물이,¹⁹⁾

이 이야기는 가뭄과 해갈의 자연현상을 페룬과 벨레스의 싸움이라는 비유를 통해 설명한 것으로, 벨레스는 지하수를 관장하는 신으로 그려진다. 러시아 학자들은 이 이야기의 원형을 고대 인도의 「인드라와 뱀 브리트라」 신화에서 찾았으나, 히타이트의 「일루얀카」 신화 초기 판본에서 이와 동일한 주제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원인도-유럽(Proto Indo-European)신화의 전통을 따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뱀 형상의 페룬도 여러 지역의 민속자료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브고로드에서 채록된 한 이야기에서는 현재 페룬 수도원이 위치한 곳은 원래 뱀-페룬의 거처였는데, 기독교 수용 후 블라지미르 대공이 그곳을 완전히 부숴버렸고, 뱀은 물속으로 도망갔다고 전하고 있다.²⁰⁾ 노브고로드는 마지막까지도 블라지미르 대공의 종교개혁을 반대한 지역으로 노브고로드 시민들은 페룬을 숭상하였다. 이런 곳에서 페룬이 쫓겨나는 뱀의 형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은 토속신앙을 없애고 기독교를 국가 통치이념으로 삼고자한 블라지미르 대공의 정책의 성공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존송대상이었던 페룬이 기독교에서 악을 상징하는 동물인 뱀의 형상을 지니게 되는 이런 페룬의 신격하락은 또 다른 전설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블라지미르 대공은 기독교 수용 전 키예프에 석조 페룬 신상을 세웠는데,

19) Александр Асов, 앞의 책. p.256.

20) Матерь Лада. Божественное родословие славян. Языческий пантеон. Эксмо, 2003. p.367.

기독교 수용 후 이 신상을 드네프르 강에 던져 버렸다. 그 신상과 함께 페룬이 강을 헤엄쳐서 가다가 높은 절벽으로 이루어진 섬에 도착했고 그 섬에 있는 동굴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그 동굴에서 페룬은 뱀으로 변하였다.²¹⁾

이처럼 슬라브-루시인들의 뱀에 대한 관념은 기독교 수용 전후에 따라 급격하게 변하였다. 기독교 수용 후 뱀은 부정한 존재, 또는 악마와 동일시되었고, 그렇기에 뱀 형상의 벨레스 또한 악한 신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페룬이 악한 뱀과 싸웠다면, 이제 페룬은 뱀으로 변할 수 있는 벨레스와 싸우게 되었다. 토속신앙이 기독교에 의해 배척되면서 심지어 페룬조차도 악의 상징인 뱀의 형상으로 변모하게 되어 사람들에게 제거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졌다.

IV. 러시아 문화 속의 페룬의 형상

러시아 문화, 특히 종교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중신앙이다. 블라지미르 대공은 종교개혁 이후 토속신앙은 제거의 대상이 되었으나 오랜 세월을 걸쳐 민중의 생활 속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이 신앙은 기독교 교리와 습합되어 독특하게 발전, 변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토속신앙의 숭배 대상들은 기존의 형상위에 기독교적인 색채가 덧입혀졌으며, 러시아 민중의 삶에서도 이런 이중적인 관념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특히 페룬은 민중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신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수용 이후에도 전통, 의식, 축제 등에서 그와 관련된 신화적 요소들이 남아있다.

21) Матерь Лада. Божественное родословие славян. Языческий пантеон. 앞의 책. pp.367-368.

1. 모스크바 문장

러시아 문화 속에서 발견되는 뱀(용)퇴치 모티브는 단연 모스크바 문장을 들 수 있다. 모스크바 문장에는 말을 타고 뱀을 무찌르고 있는 기사가 그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문장은 기독교 수용과 함께 루시로 전파된 것으로, 그리고 이 문장에 묘사된 기사는 게오르기 성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실 용을 퇴치하고 있는 기사가 모스크바 문장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아무도 그를 게오르기 성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민중들은 이 형상을 대공, 또는 왕을 상징한다고 여겼다.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가 이반 뇌제가 발행한 동전에 새겨진 뱀을 향해 창을 겨누고 있는 기사를 보고 이반 뇌제의 사신들에게 이 말에 앉아있는 사람이 천상의 왕이냐는 질문에 왕이 말 위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사신들이 대답하였는데, 그 당시의 게오르기 성인에 대한 슬라브-루시인들의 인식을 잘 나타내 주는 일화라 할 수 있다. 게오르기 성인 형상이 러시아에 처음 소개된 때는 11세기 초였다. 비잔틴에는 동전이나 인장에 성인이나 왕의 얼굴을 새기는 관습이 있었는데, 루시가 기독교를 수용하면서 이 관습도 함께 유입되었다. 그러나 게오르기 성인을 연상시키는 모스크바 문장에 그려진 기사 형상의 역사는 이보다 훨씬 오래되었다. 이는 크로아티아 지르노브니치의 용과 싸우고 있는 기사 조각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석판은 원래 도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페룬 언덕에 지어진 페룬 사원에서 갖고 온 것이다. 크로아티아 학자 안테 밀로세비크(Ante Ailošević)는 『지르노브니치의 페룬 부조가 있는 성스러운 장소』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는데, 그는 이 부조물에 묘사된 페룬 형상에는 그 어떤 그리스도교 상징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뇌신의 얼굴이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진 노브고도드의 뇌신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점, 그리고 말에 착용된 마구도 아직 기독교를 수용하기 전의 슬라브 민족들이 사용했던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이 부조에

나타난 페룬 형상은 루시인들의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크로아티아에 루시인들의 페룬 형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7세기경 슬라브계 민족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크로아티아로 이주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뱀을 제압하는 기사의 형상은 7세기 이전에 이미 고대 러시아 지역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뱀을 무찌르는 기사가 게오르기 성인으로 인식된 것은 표트르 1세가 모스크바 문장에 묘사된 기사를 게오르기 성인으로 부른 것이 시초이다. 그 후 18세기 후반에는 예카테리나 2세가 이 형상을 모스크바 문장으로 공식적으로 지정함으로써 민중들의 의식에는 이 기사가 게오르기 성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페룬과 악의 상징인 뱀의 모습을 한 벨레스와의 싸움이 익숙해 있던 슬라브인들은 별 거부감 없이 이 형상을 게오르기 성인으로 수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뱀을 죽이는 기사의 원형을 기독교의 게오르기 성인에서 찾기 보다는 히타이트의 일루얀카와 싸우는 풍우신에서 찾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여겨진다. 사실 이 기사의 원형에 대해서 러시아 학계에서도 아직 일관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까지도 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 페룬의 황소

고대부터 황소는 목축경제에서 중요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항상 숭배되어 왔고 고대 인도-유럽 전통에서는 황소를 남성성, 군사력, 생산성의 상징으로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황소는 최고신의 현신으로 또는 최고신의 동물로 간주되었다. 황소와 뇌신의 관계는 다른 인도-유럽민족의 신화에서도 나타난다. 히타이트의 뇌신인 테숨은 두 마리의 황소를 신하로 데리고 있고, 그리스의 제우스는 황소로 변하여 유로파를 납치하였으며, 로마의 주피터도 황소의 형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브포니아 축

제는 수확기에 제우스를 기리기 위해 의례용 빵을 먹은 황소를 죽였는데, 이는 계절에 따른 뇌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고대 관념과 관련된 것이다. 이와 동일한 관념이 러시아에서도 나타난다. 러시아 북부, 니제고로드 주, 펜자 주, 오를로프 주에서는 페룬 축제때 목축에 종사하는 남성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였는데, 공동체에서 기른 황소를 페룬에게 바치는 제물로 사용하였다. 황소의 살은 공동체 일원이 다 먹어 치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지만, 뼈만은 자신들이 간직하였다. 이 뼈가 행운을 가져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올로네츠 주에서 사냥꾼과 어부들이 일리야 날(페룬의 날이라고도 함)에 잡은 황소의 뼈를 갖고 있으면 포획량이 평소보다 3배나 증가한다고 믿었다. 또한 제물로 바쳐진 황소의 뼈는 파종과 수확기에 청명한 날씨를 보장해 준다고 믿기도 하였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중부아시아 지역에서 황소는 달의 신들과 관련이 있다. 고대 인도 전통에서 황소는 달의 신을 상징한 동물이었다. 이란 신화에서는 달을 황소의 씨를 갖고 있는 것으로 칭하였으며, 수메르와 아카드 신화에서 달의 신 난나(또는 썬)은 푸름 수염의 황소 형상으로 그려진다. 이 지역은 고대부터 달 숭배 신앙이 있었던 곳이었다. 그러나 테슈과 제우스, 페룬은 태양 숭배 신앙을 지닌 민족들의 최고신이었고 이들의 성스러운 동물도 역시 황소였다는 점은 이 동물이 그 당시 그 지역에 거주한 여러 민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축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V. 맺음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뱀퇴치 모티브 신화는 그 기원이 아주 오래되었다. 원래 뱀은 최초의 신화로 평가되는 수메르 신화에서 천상의 제2의 권력자인 엔키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동물로써 그 상징하는 바가 지금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나 그 이후에 형성된 고대 신화들, 예를 들면, 고대 인도 신화, 바빌로니아 신화, 우가리트 신화, 히타이트 신화, 그리스 신화 등에서 뱀은 최고신에 의해 제거되어야만 되는 존재로 그려지게 된다. 이런 뱀과 대적하는 최고신에 관한 이야기는 특히 유럽지역의 신화에서 유명하다. 또한 카파도키아에서 형성된 게오르기 성인과 뱀과의 싸움 전설이 기독교의 전파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뱀의 부정적인 상징성이 민족들의 관념 속에서 더욱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뱀을 무찌른 신에 관한 주제는 고대 인도-유럽어계 민족들의 신화와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히타이트 신화에서 뱀은 지하수를 관장하는 신으로 지상의 건기를 야기하기 때문에 풍우신(또는 뇌신)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혼돈을 상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최고신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히타이트와 같은 선조를 두고 있는 고대 러시아인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신화가 남아있다. 바로 최고의 신이자, 번개와 천둥의 신인 페룬과 스키페르와의 싸움, 또는 페룬과 벨레스와의 싸움에 대한 신화가 바로 그것이다. 이 신화에서 뱀은 히타이트 신화처럼 인간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존재로, 그리고 가뭄을 야기하는 존재로 표출되어 있다. 뱀을 죽이는(혹은 제압하는) 뇌신의 이름은 히타이트 신화의 테슈,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로마 신화의 주피터, 러시아 신화의 페룬 등 각 민족마다 다르게 불리지만 그의 역할, 성격, 형상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는 이 신화들이 하나의 원형에 기원을 두고 발전하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고대 러시아 신화의 구성은 고대 인도-유럽어족의 언어 및 문화적 유산을 계승하고 있다. 이런 특징들은 연구 대상의 범위를 넓혀 여러 인도-유럽어계 민족들의 신화들과 함께 연구함으로써 더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히타이트와 고대 러시아의 연계성은 신화에서 뿐만 아니라 러시아 문화에서도 나타난다. 바로 뱀을 향해 창을 겨누고 있는 말을 탄 기사 형상이 그것인데, 이 형상은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수용함으로써 비잔틴으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기독교 수용 훨씬 이전인 7세기 이전에 이미 러시아에 있었던 것이다. 또한 러시아 세시 풍속에서 황소 숭배신앙의 흔적이 남아 있다. 황소는 히타이트인들이 풍우신 테습에게 제례를 드릴 때 제물로 바친 동물로써 테습의 사랑을 받는 신하이자 동물로써 그려지고 있다. 이런 최고신과 황소의 관계가 고대 러시아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페룬 축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대 러시아인들은 황소가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고 황소가 페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런 믿음은 페룬 축제때 제물로 바쳐진 황소의 뼈를 간직하면 페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여긴 풍습에 남아있다.

이처럼 히타이트와 고대 러시아민족들 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요소들은 단순히 전파론으로 설명하기에는 러시아 문화의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깊숙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러시아 문화 전통에는 쌍두독수리 형상, 천상의 왕권 다툼 신화 등의 히타이트의 문화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다. 향후 이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러시아와 원인도-유럽민족간의 문화적 동질성, 연계성 파악을 통한 러시아 문화의 기원, 그리고 타 문화와의 비교를 통한 러시아 문화의 독자성을 연구하고자한다.

(논문투고: 2019.02.28, 논문심사완료: 2019.03.28, 게재확장: 2019.04.01)

참고문헌

- 김산해, 『신화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 가람기획, 2003.
- 김영선, 「성혼예식과 풍산제와의 연관성에 대한 재고성」, 『신학전망』 제199호, 광주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7.12.
- 노세영·박종수, 『고대근동의 역사와 종교』, 서울:대학기독교사회, 2000.
- 김형섭, 「슬라브 신화에 계승된 원인도유럽(Proto-Indo-European) 문화」, 『외국학연구』 제43집,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2018.3.
- M. 엘리아테 지음, 이용주 옮김, 『세계종교사상사1』, 이학사, 2005.
- S.H. 후크 지음, 박화중 옮김, 『중동신화』, 범우사, 2001.
- C.W. 세람 지음, 오홍식 옮김, 『발굴과 해독』, 푸른역사, 1999.
- 이희철, 『히타이트』, 리수, 2004.
- Z. 시친 지음, 이근영 옮김, 『수메르, 혹은 신들의 고향』, 이른아침, 2004.
- Beckman, G., "The Anatolian Myth of Illuyanka", *Journal of the Ancient Near Eastern Society*, Vol.14, 1982.
- Katz, J.T., "How to be a Dragon in Indo-European: Hittite Illuyankas and its Linguistic and Cultural Congeners in Latin, Greek, and Germanic", *Mír Curad. Studies in Honor of Calvert Watkins*, 1998.
- Watkins, C., *How to Kill a Dragon. Aspects of Indo-European Poet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Александров Б.Е., Хеттская держава и Верхняя Месопотамия в XIII в. до н. э.: реконструкция политическх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Наука, 2002.
- Гаврилов Д.А., Наговицын А.Е. Боги славян. Язычество. Традиция, Рефл-Бук, 2002.
- Иванов Вяч.Вс., Топоров В.Н. "Балтийская мифология в свете сравнительно-исторических реконструкций индоевропейских древностей", *Zeitschrift für Slavistik* (Berlin). 1974. Bd. XIX, 2. S. 144-157.
- Иванов Вяч. Вс., Топоров В.Н.,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Энциклопедия. Т.1., Наука, 1980.
- Мансикка, В.Й., Религия восточных славян, ИМЛИ им. А. М. Горького РАН, 2005.
- Проконий Кесарийский, Война с готами. Книга VII (книга III Войны с готами).
- Матерь Лада. Божественное родословие славян. Языческий пантеон, Экс-мо, 2003.
- Асов А., Русские веды. Песни Птицы Гамаюн Амрита-русь, Амрита, 2011. (<http://www.tvoy>

- hram.ru/slavrelig/slavrelig15.0.html (검색일: 2018.09.10.))
- Герни О.Р., Лозинский Н.М., Толстой Н.А. Хетты, Наука, 1987. (https://e-reading.mobi/boookreader.php/134950/Gerni_-_Hetty.pdf (검색일: 2018. 08. 05))
- Замаровский В., Тайны хеттов, Наука, 2000. (https://royallib.com/book/zamarovskiy_voyteh/tayni_hetov.html (검색일: 2018. 08.10))
- Золото Л., Прародина хеттов, Авторская книга, 2012. (<http://literu.ru/aziya/prarodina-khettov/> (검색일: 2018. 08.10))
- Маккуин Дж.Г., Хетты и их современники в Малой Азии, Наука, 1983. (<http://www.booksshare.net/index.php?id1=4&category=history&author=makunin-djg&book=1983&page=55>(검색일: 2018. 08.12))
- Максименко Ю., Хетты—древние славяне, Издательские решения, 2017 (<https://mybook.ru/author/yuriy-maksimenko/hetty-drevnie-slavyane/read/> (검색일: 2018. 08.15))
- Хеттская мифология (<http://www.socionic.ru/index.php/xxx/19458-xettskayz-mifologiya?format=pdf> (검색일: 2018. 08.15))
- <http://skazanie.info/mify-hetov> (검색일: 2018.08.16)
- http://vsegda.moy.su/publ/mify_legendy_skazaniya/veles/8-1-0-22 (검색일: 2018.09.10.)

• 국문초록 •

용(뱀)퇴치 모티브는 전 세계 신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용을 퇴치한 게오르기(게오르기우스) 성인 전설이다. 게오르기 성인 전설은 중동 지역 고대 문명신화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이야기들은 고대 인도, 바빌로니아, 우가리트 신화 등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중동지역에 정착한 인도-유럽민족의 한 갈래인 히타이트인들과 그들의 먼 후예인 슬라브 민족에게도 이런 모티브를 지닌 신화가 존재한다. 물론 뱀을 무찌르는 인물이 상징하는 바는 각 민족마다, 또는 신화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히타이트의 「일루안카」 신화에서 뱀은 지하수를 관장하는 신으로 지상의 건기를 야기하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처치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혼돈을 상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또는 뱀은 천상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최고신인 풍우신(뇌신) 테숨과 싸우는 땅과 지하세계의 신의 형상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히타이트인들의 세계관 속에 자리 잡힌 뱀에 대한 상징성은 고대 슬라브 민족의 신화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페룬과 괴사(怪巳) 스키페르, 페룬과 벨레스가 등장하는 신화나 전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뱀(용)퇴치 모티브는 중동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고대 루시 지역에서 성상화나 조각, 문장(紋章)같은 조형예술에서도 자주 이용되었다. 일반적으로 모스크바 문장에 그려진 뱀을 향해 창을 겨누고 있는 말을 탄 기사는 블라지미르 대공이 기독교를 수용한 이후, 즉 비잔틴으로부터 유입된 문화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7세기 이전부터 고대 루시에 존재했던 형상으로, 게오르기 성인이 아닌 슬라브민족의 최고신이자 뇌신인 페룬 형상이다. 이런 최고신은 종종 동물, 특히 황소의 형상으로 인간들에게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황소는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었으며, 또한 부를 상징하는 동물이 되었다. 이런 관념은 히타이트와 러시아 문화 속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서 히타이트와 고대 러시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문화요소라 하겠다. 이처럼 러시아 문화와 민간 전통에는 고대 중동 문명, 특히 히타이트의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다.

주제어 : 뱀퇴치 모티브, 인도-유럽 신화, 히타이트 신화, 러시아 신화, 페룬, 테숨, 벨레스(볼로스), 황소

• Abstract •

Hittite cultural elements in old Russian mythology

Lee, Jae-jung

The slaying of dragon(serpent) is one of the common motifs found in the myths around the world. The legend of Saint George who slew a dragon is the most well-known myth of this kind. Such motif originates from the ancient Near Eastern mythology. The myths that share similar motif are also found in the Indo-European Hittite and Slavic culture. The interpretations of what snakes symbolize, as well as the mythical characters who slay them, differ in accordance to each culture and mythology. In Hittite mythology, snakes symbolized the god who controls the underground water, the evil power that brings dry season, and the chaos. Thus, a snake was an object to be killed to put the world in order. In addition, snakes were regarded as the god of earth and underworld who constantly fights with the storm god over the throne of heaven. The Hittite symbol of snakes is also similarly used in the Slavic mythology. Such symbols are found in the myth and legend where Perun, Skiper(monster snake), and Veles appear. Furthermore, the motif of crusade against serpent(dragon) was commonly used in the formative art, such as iconography, sculptures of the middle east and ancient Russian region. Especially in Russia very well-known image of the knight on horseback, who slew a dragon in the coat of arms of Moscow. It is known that this image came to Russia from Byzantium after the adoption of Christianity by grand Prince Vladimir and people called the knight St. Georgie. In fact, it is the image of Perun that existed in the ancient Russia before the 7th century, not of St. Georgie. God of storm, lightning, thunder, rain, as teshub(in Hittite) and Perun have often appeared to humans in the form of animals, especially bulls, so that bulls have become objects of worship and was regarded by the people as a symbol of wealth. Likewise, Russian culture and tradition still preserve many cultural parts of the ancient middle eastern civilization, especially that of the Hittites.

Key word : Slaying of serpent motif, Slavic mythology, Hittite mythology, Perun, Veles, Tesup, Illuyanka